

2025년 새정부 출범

-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득표율 49.42%)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다음날인 6월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당선을 의결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함.
-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밝히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 지시
-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국가 균형발전·복지·노동·교육·환경·농업·농촌 등 각 부문별로 공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보임.
-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 및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농어업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촌지역 햇빛연금 지급 등 정책들이 개편 혹은 신규 도입될 것으로 판단됨.

Ⅰ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 Ⅰ

부문	주요공약
경제	•AI 예산 증액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2030년)-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2040년) 건설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 •주주총실효의무 도입 및 소액주주 보호 강화 •벤처투자시장 육성 •R&D예산 확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국가 균형발전	•세종시사당·대통령집무실 적기 건립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5대 초광역권 중심 발전 및 3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복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육아휴직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자·지급액 확대 •직장인 필수생활비 부담 절감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완화 및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합리적 조정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의료취약지 주치의제 시범사업 후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고령자 주거 문제 해소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65세) •자녀양육 위한 세제혜택 강화
노동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추진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차별 금지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코로나 대출 대책 마련 •경영부담 종합대책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상병수당 확대
교육	•지방거점국립대 예산확대 •학부 교육 중심에서 대학원 연구중심 전환 유도 •학자금대출 상환 소득요건 완화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민주주의 교육 강화 •과학기술인·현장연구자 처우 개선 •교권 보호
환경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추진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추진 •전기차 보급 확대·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농업·농촌	•식량주권법 제정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농식품 RE100 단계적 도입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양곡관리법 개정 •직불금 확대 개편 •가격안정제 및 수입안정보험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및 농업인안전보험 강화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촌지역 식품사각지대 해소, GMO 완전 표시제 도입(단계적 확대) •K-푸드 혁신성장,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농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연금 지급 •임업직불제 확대 •산림재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피해지원제도 개선 •임산물 산업 활성화 •산지은행 도입(산주-임업인 연결)

*출처: 연합뉴스(2025.06.04.)

KBS(2025.06.04.)

아시아투데이(2025.06.04.)

세계 경제 동향

● OECD 2025~2026 경제전망 발표 | 2025-06-03 OECD

- 2025년 6월 3일 OECD는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OECD는 매년 6월, 11월에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3월, 9월에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전망 중간업데이트(OECD Interim Economic Outlook)를 발표함.
 - 무역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변동성 등으로 인한 성장성 둔화 예측
 - 2025년 글로벌 GDP 성장률 예측을 기존 3.1%에서 2.9%로 하향 조정
- OECD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물가 상승, 투자 및 소비 둔화 등을 우려함.
 -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024년 2%에서 2025년 15.4%로 급등하였으며, 이는 1938년 이후 최고치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연계국 간의 무역 둔화로 인해 2025년과 2026년 세계 무역 성장률은 각각 2.8%, 2.2%로 전망됨. 이는 2024년 12월 전망 대비 각각 0.8%p, 1.3%p 낮은 수치임.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미국: 2026년부터 기준금리 인하 예상
 - 유로존: 2025년 3분기 1.75%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예상
 - 일본: 2026년 말 기준 기준금리가 1.25% 이를 때까지 단계적 인상 예상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방위비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폴란드와 발트3국은 GDP의 5% 이상을 방위비에 지출하기로 결의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방위비 확대 움직임이 있음.
 - 단기적으로 방위비 확대에 따른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됨.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방위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방위 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 효과가 클 수 있음.
- OECD는 향후 고령화, 기후변화, 방위비 증가 등에 따른 각국의 재정 부담 증가를 예상하면서 세제 개혁과 재정의 효율적 지출 필요성을 제기함.

국내 경제 동향

●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9%로 둔화 | 2025-06-04 통계청; 한국은행; 연합뉴스

- 2025년 6월 4일 통계청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2025년 1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 안팎을 유지
-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7%, 2.3% 하락(-)하면서 전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데 기여함.
 - 농산물 가격은 출하 확대 및 정부 할인지원 행사 등의 영향으로 4월 -1.5%에서 5월 -4.7%로 가격 하락 폭이 확대
 -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월 -1.7%에서 5월 -2.3%로 하락폭 확대
 - 5월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였으나, 이전* 대비 상승폭은 소폭 축소
- *3~4월 연속 2.4% 상승
 -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축산물 물가지수 상승률은 6.2%로 3월(3.1%), 4월(4.8%)과 비교하여 상승폭 확대
-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 등을 이유로 향후 물가상승률이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지난 5월부터 이어지는 캐나다 산불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러-우 전쟁 격화, 미국 재정 불안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은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함.

■ 2024~25년 5월 소비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농림수산성 정부 비축미 매도 방식 수의계약으로 변경 | 2025-05-26, 27 농림수산성, 일본농업신문
 - 일본 농림수산성은 5월 26일 정부 비축미 매도 방식을 기존의 일반경쟁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비축미 매도 변경 방안을 발표함.
 - (계약 대상자) 대형 소매업체 중 연간 쌀 취급량이 1만 톤 이상이며, POS(Point-of-Sales) 데이터 제공에 협조할 수 있는 업체
 - (계약 방식) 매일 선착순으로 비축미 양도 신청 접수→계약→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5년 8월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 신청 접수
 - (양도 가격) 정부 비축미 양도 가격은 1만 700엔/60kg(세금 포함 1만 1,556엔/60kg)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소매가격은 약 2,000엔/5kg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양도 물량) 비축미 양도 물량은 2022년산 쌀 20만 톤, 2021년산 쌀 10만 톤으로 총 30만 톤이며, 기존 입찰방식과는 다르게 환매 조건(정부가 매도한 쌀을 동일 수량으로 다시 매입하는 조건) 폐지
 - 농림수산성이 정부 비축미 매도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는 정부 비축미 매도 가격을 낮춰 소매 판매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농림수산성은 비축미 방출 목적을 기존의 '유통 원활화'에서 '저렴한 비축미의 안정적 공급'으로 변경하여 비축미 방출 목적에 '쌀 가격 인하'를 추가함.
 -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정부 비축미 입찰 가격은 2만 302엔/60kg(세금 제외)으로 이번 수의계약 가격의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일본농업신문은 기존의 비축미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쌀을 낙찰받는 구조였다는 점을 근거로 입찰방식으로 인해 소매 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함.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농식품부, 주요 채소류에 대한 선제적 수급관리 추진 | 2025-05-28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5월 28일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안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배추의 경우, 봄배추 출하량 증가로 봄배추가 출하되는 7월 상순까지 도매가격이 낮게 유지될 전망
 - 무의 경우, 생산량 및 저장량이 증가한 봄 작형이 출하되어 도매가격이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 모두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도매가격이 형성될 전망
 - 마늘은 24년산 저장 마늘 재고량의 감소로 도매가격이 전·평년보다 높은 수준
- 주요 채소별 수급 동향에 따른 선제적 수급 안정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공급량이 충분한 봄배추와 무 2만 3천 톤을 사전 수매비축하여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도매시장 등에 방출하고, 농협을 통해 여름 배추, 무의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할 계획
 - 양파는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에 따라 우선 수매비축(30천 톤), 자조금 활용 저품위 상품 출하 억제(4천 톤) 등을 통해 과잉물량을 전량 해소하고, 중생종 양파 3천 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출하를 연기하여 홍수 출하 방지 계획
 - 마늘은 25년산 햇마늘 출하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을 깎마늘로 가공하여 전국 도매시장에 분산 공급하고 있으며, 조기 수확 후 6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양제, 약제 등 지원 추진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을 통한 산지 작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급변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철저한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